독자가 현대불교에 바랍니다

본지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자 前 편집국장을 비롯해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님, 재가 독자에게서 의견과 조언을 수렴했다. 다음은 본지에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은 독자들의 기고문이다.

학술·문화계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여 앉아 화두 든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예고 기사와 도표로 정리한 현대불교

현대불교 55

면학열풍 불고 있다

문화강좌를 개설한 현대불교

데생용 반가사유상 중 고교에 보급시다

"굳주리는 北동포 방관말자"

덴생용 반가사유상 제작 보급운동 나선 현대불교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이 되려면

불교방송 'BBS초대석'에서 만난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필자가 들고나간 신문의 한 면을 보고 반가워하셨다. "어느 신문예요?" "'현대불교'입니다. 전화하셔서 칭찬 좀 해주세요."

올 8월 10일자 현대불교는 종학연구소 주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예고기사와 함께 도표로 정리했다. 해외석학 등 많은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하는 그 내용을 기사로 풀어썼다면 독자들이 챙겨보기에 불편했을 것이다. 선배로서 흐뭇했다.

바른 신행의 길잡이

불교계가 신문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법교화와 더불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겠다.

신문이 대중교화를 제대로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어 줘야한다. 기사 하나 하나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길잡이가 될 때 '현대불교' 독자들은 신문을 거울삼아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고 수행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또 비불자들은 '현대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쉽고 재미있는 교리·경전강좌, 큰스님 법석, 신행 현장, 수행이야기, 불교와 제(諸)과학, 해외불교, 불교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지면 구성은 필수다. '현대불교'가 이런 지면을 꾸미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잘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해행증'의 내용이 얼마나 심도 깊게 지면에 녹아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얼마나 끌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기획 연재는 거둬내야 한다. 기자들도 이 조건을 새기면서 기사를 써야 한다.

비불자와 고급독자 확보를 위해 뇌과학, 천체물리학, 환경문제 등 제과학을 불교와 접목하는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대중 속으로 세상 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 사회를 계도할 수 있는 칼럼이나 주제가 있는 법어도 필요하다.

이런 지면은 불자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 안내를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일깨우는 목탁이기도 하다.

자랑 같아서 쑥스럽지만 필자는 1990년 불교신문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국비구니회, 식생활개발연구원과 함께 '사찰음식 잔치'를 열었다. 일반방송, 신문·잡지 등에서 기사화 하고 그 반응은 대단했다. 20년 전에 사찰음식 대중화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현대불교'에서도 문화유산의 해를 기점으로 독자와 함께하는 사찰기행을 주제로 바꿔가며 여러 해 실시했다. 뎃생용 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제작 보급, 문화관광부 제정 혜초의 달에 국악 교성곡 '혜초'를 작곡해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일 등은 쾌거였다.

'현대불교'는 바로 이런 일도 해야 한다.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발전시키고 독자와 일반인을 그 마당에 동참케 하는 작업을 할 때 신문은 더욱 돋보인다. 그러면 독자도 늘어난다. 신문의 수입원인 광고효과는 독자수가 좌우한다.

공부하고 수행하는 기자

불교언론이 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고 사회와 대중의 목탁이 되려면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이 신행과 수행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기자들이 정법으로 신행하고 수행할 때 신문을 통해 불교안의 비 불교적 요소를 거둬낼 수 있다. 또 역사, 문화, 뇌과학 등을 폭넓게 공부해 불교와 접목할 때 응용불교가 가능하다.

신문은 기자가 만든다. 결국 신문의 품질은 기자를 평가한다. 현대불교는 창간과 함께 교계 안팎의 시선을 끌었다.

이제 3년 후면 20주년을 맞는다. 성대한 20주년 잔치를 위해 분발하길 당부한다. 신문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구성원 모두 화합하고, 1단 기사도 공들여 작성하자. 그러면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이 된다.

최정희 (前 현대불교 창간편집국장)

맑고 향기로운 보시행을 바라며

벌써 10월이다. 지난 여름 지루하리만치 하늘은 비를 쏟아 붓더니 조석으로 좀 쌀쌀한 듯 하지만 파란 가을 하늘과 벼들이 익어가며 황금물결을 이루는 들녘을 보면 언제 그랬냐 싶다. 이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가 보다.

전국을 긴장시켰던 지난여름 폭우처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고통이 때론 사람을 가을 열매처럼 튼실하게 여물어지게 하는 것 같다.

아! 하는 순간 멀어진 세월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며 시공간의 무상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인다.

현대불교신문이 벌써 창간 17주년을 맞이했다니 그 또한 무상함이다. 불교계의 희노애락의 소식들을 전하며 보내온 시간을 뒤 돌아보라. 어느 소식에 웃었고, 어느 소식에 진노했는지. 또 어느 소식을 찬탄하고 격려하며 본받고 싶었는지를 말이다.

자신의 성찰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문가의 100가지 1000가지 고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계 언론에 바란다. 언론이 가진 큰 힘으로 세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때론 그 힘을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을 보곤 한다.

우리는 총칼의 힘보다 붓(기사)의 힘이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기사 한 건으로 승가와 수행자를 천상과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든다. 친소 인연에 따라 스타가 되기도 하고, 아주 세상에 못 쓸 사람이 되기도 한다.

보도에 대한 권리만 누리는 언론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언론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현대불교신문이 그 어느 때 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길 바라며, 불교계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 가는 대들보가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명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콘텐츠 기대

현대 불교신문 구독자가 된지도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에게 내 마음의 불씨가 되어 오늘도 현대불교 신문을 펼쳐보며 여러 대덕큰스님의 법문 글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길을 묻는 이에게' 라는 대행스님의 선문답 법문을 읽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 없이 반복해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글은 쓰고, 오려서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틈나는 대로 또 읽고 있다. 큰스님이 일러주신 관법수행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를 넓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불교계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지금껏 딱딱한 사설을 다루는 것 같다.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모든 가정의 가족이 두루 접 할 수 있는 가족적인 신문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면을 하나 만들어 또래 어린이들의 생각과 고민을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를 맞춘 글이나 만화, 꽁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청소년면을 만들어 이 시기에 겪는 고민, 혼란성, 문제점들을 부처님 지혜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선문답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부면을 만들어 부부의 불화, 갈등, 가정속의 고민 등 문제점들을 부처님 지혜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다면 더 밝은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면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외로움, 고민 등을 들어주며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신문이 가족 신문이 되어 바른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보다 밝은 가정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진말련(주부 · 현대불교 독자)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매체가 되길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창간되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교신문은 전문지 가운데도 아주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지만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종교신문은 비록 특정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종교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신문 구독자의 급격한 감소는 현대불교신문과 같은 전문지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적정한 규모의 독자층 확보가 모든 신문의 과제이며 현대불교신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 정신의 구현이 출가자 승단과 재가자만이 아니라 불교도가 아닌 일반인이 일상생활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교경전은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성경은 시대 변화 그리고 언어 장벽을 넘어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보해 왔다. 불교경전이 단기간에 성경과 같은 대중서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불교계 신문들이 원어 경전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바꾸어 불교도와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신문, 시대와 더불어 사는 신문 상을 세우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지만 인간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과학이 만들어 내는 부작용으로 인해 인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발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경쟁을 요구해 정신적 빈곤을 초래했다. 이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의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행과 자비를 기본으로 하는 불교 정신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이 과학과 발전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극 발굴하여 전달해야 한다. 환경보호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사회 현안에 대해 불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신문이 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미디어 환경에 선도적으로 적응해 가야한다. 지금은 신문이 종이에서 벗어나 인터넷, 휴대폰, 태블릿PC에 적합한 포맷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젊은 층은 종이신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신문을 접하는 매체로 들어가야 한다. 이동매체에 적합한 기사포맷을 개발하고 젊은층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발굴하여 전달해야 한다.

김관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四柱

子平眞詮 精解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중화민국대의 대명학리자 서락오(徐樂吾)의 설을 인용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평진전을 읽고 난 뒤에 적천수를 읽어야만 적천수의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744쪽 /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